



...무헤드, 이 화면은 2주
뒤 자동으로 네 앞으로
배달될 거다.



그 땐 놀라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실행해
주기 바란다.



왜냐 하면 나는
기억을 디스크에 저장하는
위험한 실험을
할 테니까...

시잉

특명19

백아종의 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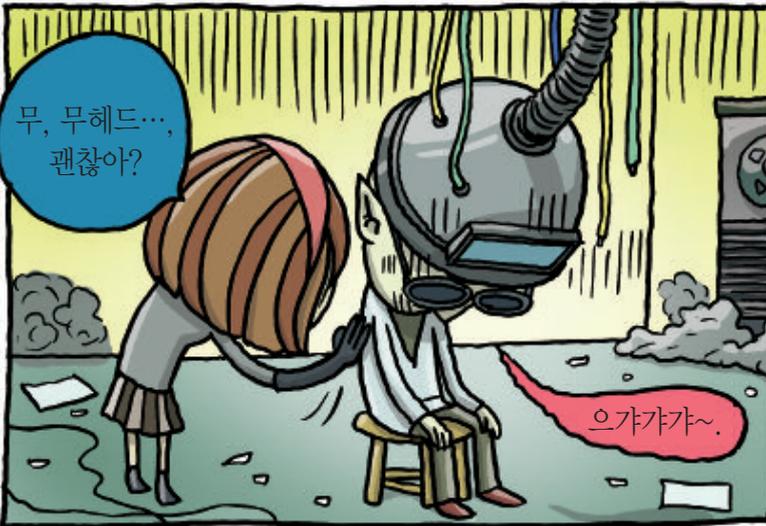
글 윤신영 그림 김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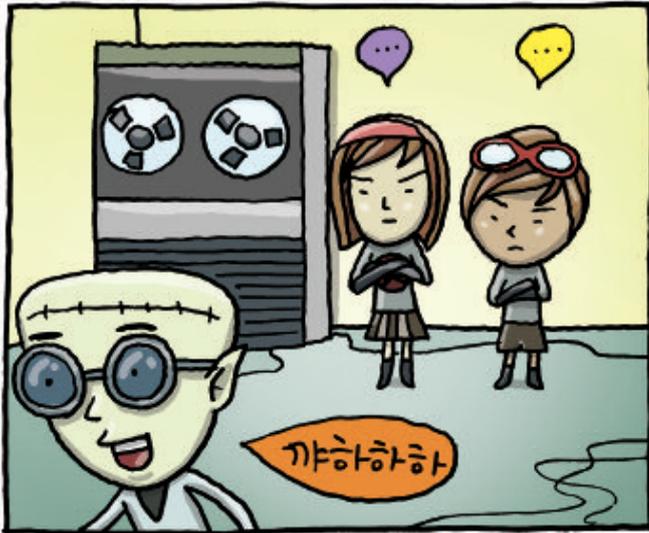
지난 줄거리 : 강원도에 간 스틸로 일행은 길을 잃고 동굴에서 하룻밤을 지낸다. 그러나 뒤따라온 무헤드의 음모로 일행은 탄광에 갇히고 KIST 강릉 분원은 무헤드가 만든 로봇의 공격을 받는다. 그러나 로봇은 오염된 탄광 배수 때문에 고장을 일으키고, KIST 박사님들은 적인 무헤드를 도와 로봇을 고쳐 준다.











까하하하



형아, 이 로봇
재밌쪄요. 나 나중에
로봇 과학자 될래.



와아~,
사탕이다~!

완전히
어린애가 됐어.

응...

맛있다~.



무헤드!
너 어떻게 된 거야!
아무 기억 안 나?



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
기억...?



므하핫~,
몰라, 몰라.
누나 업어 줘~.

꿈~.





■ KIST 스피트로닉스연구단

아하, 스피트로닉스라는 말이 어렵지요? 하지만 자성 기록 매체라고 하면 조금 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 말도 어렵다고요? 그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그렇지! '어린이과학동아' 친구들, 카세트 테이프는 본 적 있지요? 지금은 많이 쓰이지 않지만 한 때 음악을 듣거나 영어를 공부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장치였어요. 그 까만 테이프 안에 음악이 들어가는 원리가 바로 자성 기록 원리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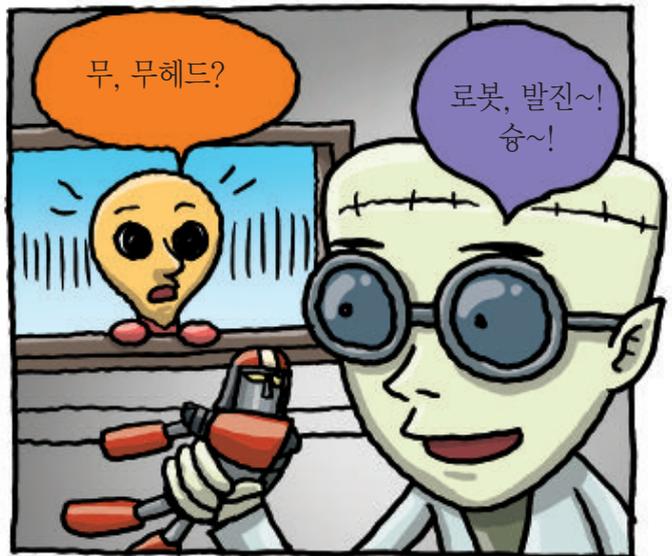
바닥에 철가루를 뿌려 두고 자석을 가까이 가져 가면 철가루가 자석 주위에 둥그런 모양으로 놓이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자석에는 N극과 S극이라는 두 개의 극이 있어서 철가루가 그 방향으로 늘어서기 때문이지요. 이 현상을 녹음에 이용한 것이 카세트 테이프예요. 테이프에 철가루 같이 자성을 띠 수 있는 물질을 발라 두고 자석으로 차례로 N극, S극, S극, S극, N극, ... 이렇게 극을 바꿔가면서 차례로 기록해 나가는 것이지요. N극과 S극의 순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리 약속으로 정해 두면 그게 바로 하나하나 소리 정보가 된답니다. 다시 테이프를 틀 때에는 기록된 자기장의 방향과 순서만 읽어서 미리 약속된 소리로 바꿔 주면 되는 거죠!

이 원리는 아빠 엄마가 쓰시는 신용카드나 컴퓨터의 디스크에도 쓰이고 있어요. 하지만 용량이 큰 디스크에 쓰으려면 더 복잡한 원리가 필요한데 그걸 연구하는 곳이 바로 'KIST 스피트로닉스연구단' 이에요.

아, 그런데 저는 누구냐고요? 보시다시피 친절한 수위 아저씨지요. 왜 나왔냐고요? ...그거야 아직 KIST 박사님이 등장하지 않아서지요.







기억을 잃고 어린애가 되어 버린 무헤드, 과연 그의 운명은?

